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혁명사상

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206호 [근로계 제24984호] 주제 104(2015)년 7월 25일 (토요일)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따라 주체혁명

위업을 끝까지 완성하자!

사설

위대한 년대의 승리자들의 영웅적투쟁정신으로 억세게 싸워나가자

조국해방 일흔과 창건 일흔이 되는 뜻깊은 올해의 전승절을 맞으며 제4차 전국로병대회가 오늘 혁명의 수도 평양에서 성대히 진행된다.

전체 군대와 인민이 위대한 년대의 승리자들의 투쟁정신으로 사회주의수호전과 강성국가건설대전에서 자랑한 위훈을 창조해나가고있는 격동적인 시기에 전국로병대회를 가지게 된것은 백두산대국의 선군혁명승리사에 특기할 또 하나의 경사이다.

이번 대회에는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에서 무비의 영웅성과 희생정신을 발휘한 항일의 로투사들과 전쟁로병들, 전사공로자들과 비전향장기수들이, 전후 반미대결전과 사회주의수호전에서 위훈을 떨친 로병들이 참가하고있다.

지금 온 나라의 전체 인민군장병들과 인민들은 제2의 해방의 날, 승리의 7.27을 안아오고 화신병사의 자태로 한생을 번갈았으며 당과 수령을 받들어온 로병들이 또다시 한자리에 모여있을 땀을 전심으로 기뻐하고있으며 이번 대회에 열렬한 축하를 보내고있다.

제4차 전국로병대회는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불멸의 전승정신과 선군혁명정신을 깊이 빛내이며 1950년대의 조국수호정신을 굳건히 계승하여 조국통일과 강성국가건설의 최후승리를 위해 나간 천만군민의 투쟁정신을 의지를 힘있게 과시하는 긍지높은 대회합으로 된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우리는 1950년대 조국방위자들이 발휘한 영웅적투쟁정신을 이어받아 사회주의수호전과 강성국가건설대전에서 새로운 승리를 이룩함으로써 전승의 자랑스런 역사를 끝없이 빛내어나가야 합니다.»

위대한 시대, 위대한 년대를 개척한 선명들의 투쟁정신이 계승되는 혁명은 백전백승한다.

오늘 우리 혁명은 인류사위업의 운명과 전도를 안고 새로운 높은 단계에서 전진하고있다. 우리의 힘찬 전진군을 가로막으려는 제국주의자들의 책동은 그 어느때보다도 악랄해지고있다. 사회주의의 진로와 그 승리의 필연성은 조선혁명가들의 투쟁에 달려있다. 우리 혁명의 전격사적 과정에도 그러했지만 새로운 주체 100년대의 혁명투쟁에서도 가장 위대한 무기는 천만군민의 사상정신력이다.

우리 당은 시대와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위대한 수령님들의 불멸의 업적과 선군조선의 승리의 전통을 끝없이 빛내이며 전승세대의 영웅적투쟁정신을 대를 이어 계승해나가기 위하여 이번 대회로 소집하였다. 제4차 전국로병대회는 1950년대 조국방위자들의 시대적의무가 무엇이며 자라나는 세대들이 간직하여야 할 귀중한 재부가 무엇인가를 뚜렷이 새겨주는 중요한 계기로 된다. 우리 당은 최후승리를 위한 총공격전에서 위대한 년대의 승리자들이 가장 열렬한 충정의 불씨가 되고 꺼지지 않는 애국의 화불이 되며 천만군민을 원수격멸에로 부르는 투쟁의 기치가 될것을 바라고있다.

이번 대회로 계기로 우리 당이 아끼고 높이 내세워주는 전쟁로병들의 사상정신적공포를 심장같이 체득하고 1950년대의 조국수호정신을 이룩함으로써 전승의 자랑스런 역사를 끝없이 빛내어나가야 합니다. 이번 대회에 열렬한 축하를 보내고있다.

전쟁로병들은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전화의 불길속에서 체질화하고 끝없이 이어나가는 참된 혁명가들이다.

«당과 수령을 위하여!», 전화의 나날에 전진과 후방에서 높이 울려 퍼졌던 이 구호에는 전승세대가 지닌 영웅적투쟁정신의 근본핵이 깰것을 없다. 지난 조국해방전쟁은 로동계급의 혁명투쟁사상 처음으로 수령, 당, 대중의 일치단결이 확고히 실현되고 혁명적수행관과 조국관,

고결한 충정과 빛나는 군공이 하나로 결합된 혁명전쟁이었다. 결사전을 앞두고 최고사령관동지께 삼가 올린 맹세의 편지들과 불꽃은 적의 화점앞에서 미친 《김일성장군 만세!》의 웨침, 피눈은 당원들들과 군벌의 위호어린 근무기록에는 1950년대 조국방위자들의 숭고한 정신세계가 력력히 어려있다. 수령이 가리키는 길은 끝 백승의 길이며 당과 수령을 위하여 참군도 생명이 다 바치는 여기에 인생의 영광이 있다라는 것이 전화의 용사들이 지닌 억척불변의 신념이었다.

우리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이번 대회에 참가한 전쟁로병들에게서 파라배워야 할 가장 중요한 정신적공포가 바로 전화의 불길속에서 높이 발휘된 충실성의 정신이다. 조선의 운명이고 비애이시며 백전백승의 상징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결사옹위하자, 이것이 전쟁로병들의 절절한 당무이고 우리의 전체 군대와 인민의 의지이다. 위대한 년대의 승리자들의 수령결사옹위정신이 확고히 계승되고있는 선군조선의 입심 단결의 위력을 당할 힘은 이 세상에 없다.

전쟁로병들은 조국에 대한 사랑과 헌신을 대하는 보람으로, 최대의 의무로 간직할 열렬한 애국자들이다.

위대한 수령님의 은덕으로 해방후 땅과 공장의 주인이 되어 인간다운 생활을 누려온 우리 로병들에게 있어서 조국은 생명보다 더 귀중한 삶의 진부였다. 조국을 잃으면 또다시 노예가 된다는 진리를 뼈에 새겼기에 그들은 불 한포기, 나무 한그루도 자기 살붙이처럼 사랑하였으며 한치한치의 땅을 피로써 사수하였다. 하나밖에 없는 조국을 위하여 인민군용사들은 육탄이 되어 적망과 군함을 까시였으며 후방인민들은 맨손으로 피대를 돌리고 적들의 맹목적폭력에서 발을 갈며 전사생산을 보장하였다.

로병들의 조국에 대한 사랑과 헌신은 가식과 변심을 모르는 더없이 진실하고 열렬한것이다. 지난 수십

년간 우리 조국방위에 전쟁의 검은 구름이 몰려올 때마다 용감 인민군 대북대를 단련하고 그 어떤 명이나 보수도 바탕이 없이 전화의 그 열정 과 투지로 애국헌신의 삶을 빛내어 온 사람들이 바로 우리 전쟁로병들이다.

애국은 조국에 대한 헌신이고 투신이다. 참군도 생명이 다 바쳐 조국을 수호하고 온몸을 초몰처럼 불태우며 조국헌신의 밑거름이 되어온 로병들의 고귀한 생애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삶과 투쟁의 교과서로 된다. 이번 대회에는 천만군민의 가슴마다에 걸시는 조국수호정신을 배배해주고 최후승리의 애국적전군을 힘있게 고무추동하게 될것이다.

전쟁로병들은 백전백승의 투쟁정신으로 불멸의 영웅사시기를 창조해 온 절절한 투사들이다. 조국해방전쟁의 전기간 우리 로병들은 간고하고 준엄한 시련속에서도 언제나 필승의 신념에 넘쳐있었다. 전략적인 일시적후퇴의 길에 올라서도 동요와 비판을 몰랐으며 적후퇴 리 밀릴때에도 미레를 탄판하며 끝까지 싸웠다. 불과 4문의 포로로 적의 대병력과 맞서 3일간이나 혈미도를 사수하고 불타는 고지에서 화신악기를 만들어 음악회를 펼친 로병들의 불사신의 용맹과 혁명적력 판은 원수들을 전멸케 하였으며 세계를 경탄시켰다.

로병들의 강한 투쟁정신은 전후 복구건설과 사회주의건설시기를 비롯하여 자랑한 승리와 변혁으로 수놓아진 우리 혁명의 년대마다에도 뜨겁게 새겨져있다. 수십년세월 철 도 자기 살붙이처럼 사랑하였으며 한치한치의 땅을 피로써 사수하였던 애국의 투쟁정신은 오늘도 우리 인민군용사들은 육탄이 되어 적망과 군함을 까시였으며 후방인민들은 맨손으로 피대를 돌리고 적들의 맹목적폭력에서 발을 갈며 전사생산을 보장하였다.

백전백승, 이것은 영원히 변할수 없는 영웅조선의 배양이고 기상이다. 미제와 그 추종세력들이 발악하면 할수록 필승의 신념이 더욱이 굳어지고 있다. 미제와 그 추종세력들이 발악하면 할수록 필승의 신념이 더욱이 굳어지고 있다. 미제와 그 추종세력들이 발악하면 할수록 필승의 신념이 더욱이 굳어지고 있다.

세대가 열변만 바뀌고 혁명투쟁의 조건과 환경이 어떻게 변하든 전승세대의 영웅적투쟁정신으로 최후승리를 이룩해나갈것이다.

항일의 로투사들과 전쟁로병들, 전사공로자들과 비전향장기수들, 전후 반미대결전과 사회주의수호전에서 위훈을 떨친 로병들에 대한 우리 당의 사랑과 믿음은 날이 갈수록 더욱더 커지고있다. 여기에는 모든 로병들이 조국수호의 년대들을 자랑한 위훈으로 수놓아온 지난날과 마찬가지로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이끄시는 오늘이 시대에 혁명신념으로 사랑과 믿음을 다해나갈것을 바라는 우리 당의 숭고한 뜻이 깰것이다.

모든 로병들은 당의 하늘같은 믿음과 사랑을 한시도 잊지 말고 생의 마지막순간까지 값있는 삶을 수놓아가야 한다.

혁명가에게 있어서 육체적로쇠는 있을수 있어도 정신적로쇠는 있을수 없다. 백두산철새위인들의 품속에서 고귀한 정치적정신을 받아내고 준엄한 혁명의 폭풍우를 앞장에서 헤쳐왔으며 당의 온정속에 가장 긍지높고 보람찬 삶을 빛내여온 우리 로병들은 인생의 시작도 끝도 한모습이 아니라 한다.

로병들은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를 주체의 태양으로 높이 우러러모시며 수령님들의 불멸의 전승정신과 선군혁명정신을 견결히 옹호고수하고 빛내어나가야 한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영광찬란한 혁명력사의 체현자, 목격자였던 로병들은 인민군용사들과 인민들, 세 세대들의 가슴마다에 질세위인들의 위대성을 깊이 심어주는 직극적인 선전자가 되어야 한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사랑까지 합쳐 로병들을 따뜻이 보살펴주고계시는 자애로운 어버이이시다. 로병들은 대를 이어 수령복, 장군복을 누리는 크나큰 영광과 긍지를 가슴깊이 간직하고 경애하는 원수님을 백목같은 충정과 혁명적의리로 받들어나가야 한다.

당적 끝내기 위한 총공격전을 벌려 나가야 한다.

로병들을 존대하는 사회적이공을 세우기 위한 사업을 더욱 짜고들어 진행하여야 한다. 모든 당조직들과 근로단체조직들에서는 당원들과 근로자들, 세대들이 로병들을 도덕적리적으로 높이 내세우고 위해하도록 교양사업을 강화하여야 한다. 로병들이 조국해방전쟁행가자라는 긍지감을 가지게 하고 헌성을 빛내일수 있도록 그들의 사업과 생활에 언제나 깊은 관심을 돌리고 성심성의로 돌보아주어야 한다.

인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1950년대의 조국수호정신으로 무장시키기 위한 사상교양사업을 끊임없이 심화시켜야 한다.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 참관과 전쟁로병들과의 상봉모임, 전사기묘보급 등 다양한 형식과 방법으로 사람들의 가슴마다에 절절한 반세투쟁의지를 거울로 삼고 삶의 순간순간을 수령결사옹위정신으로 수놓아가야 한다. 전당과 온 사회에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유일적령도체제를 철저히 세우며 수령의 유훈관철, 당정책옹위전의 불길을 새차게 지펴 올려야 한다.

인민군대에서는 오중중7대최초 생위운동과 근위부대운동을 힘있게 벌려 전군을 최정에혁명강군으로 더욱 강화하며 오늘의 반세반미대결전에서 위대한 전승의 역사를 끝없이 빛내어나가야 한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1211고지방위자들 처럼 자기 초소를 조국수호의 전초성으로 여기고 일리마에서 끝없는 생산적양양을 일으켜나가야 한다. 1950년대 군자리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부터는 애로와 난관을 자체의 힘으로 뚫고나가야 한다. 군대와 인민이 한전호에서 생사를 같이하며 미제를 때려부신 그대로를 근대단계의 위력, 군인협동투쟁의 위력으로 백두산선군청년발전소와 과학기술전당을 비롯한 중요대상건설을 앞

진행하여야 한다.

모든 당조직들과 근로단체조직들에서는 당원들과 근로자들, 세대들이 로병들을 도덕적리적으로 높이 내세우고 위해하도록 교양사업을 강화하여야 한다. 로병들이 조국해방전쟁행가자라는 긍지감을 가지게 하고 헌성을 빛내일수 있도록 그들의 사업과 생활에 언제나 깊은 관심을 돌리고 성심성의로 돌보아주어야 한다.

인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1950년대의 조국수호정신으로 무장시키기 위한 사상교양사업을 끊임없이 심화시켜야 한다.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 참관과 전쟁로병들과의 상봉모임, 전사기묘보급 등 다양한 형식과 방법으로 사람들의 가슴마다에 절절한 반세투쟁의지를 거울로 삼고 삶의 순간순간을 수령결사옹위정신으로 수놓아가야 한다. 전당과 온 사회에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유일적령도체제를 철저히 세우며 수령의 유훈관철, 당정책옹위전의 불길을 새차게 지펴 올려야 한다.

인민군대에서는 오중중7대최초 생위운동과 근위부대운동을 힘있게 벌려 전군을 최정에혁명강군으로 더욱 강화하며 오늘의 반세반미대결전에서 위대한 전승의 역사를 끝없이 빛내어나가야 한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1211고지방위자들 처럼 자기 초소를 조국수호의 전초성으로 여기고 일리마에서 끝없는 생산적양양을 일으켜나가야 한다. 1950년대 군자리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부터는 애로와 난관을 자체의 힘으로 뚫고나가야 한다. 군대와 인민이 한전호에서 생사를 같이하며 미제를 때려부신 그대로를 근대단계의 위력, 군인협동투쟁의 위력으로 백두산선군청년발전소와 과학기술전당을 비롯한 중요대상건설을 앞

진행하여야 한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1211고지방위자들 처럼 자기 초소를 조국수호의 전초성으로 여기고 일리마에서 끝없는 생산적양양을 일으켜나가야 한다. 1950년대 군자리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부터는 애로와 난관을 자체의 힘으로 뚫고나가야 한다. 군대와 인민이 한전호에서 생사를 같이하며 미제를 때려부신 그대로를 근대단계의 위력, 군인협동투쟁의 위력으로 백두산선군청년발전소와 과학기술전당을 비롯한 중요대상건설을 앞

진행하여야 한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1211고지방위자들 처럼 자기 초소를 조국수호의 전초성으로 여기고 일리마에서 끝없는 생산적양양을 일으켜나가야 한다. 1950년대 군자리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부터는 애로와 난관을 자체의 힘으로 뚫고나가야 한다. 군대와 인민이 한전호에서 생사를 같이하며 미제를 때려부신 그대로를 근대단계의 위력, 군인협동투쟁의 위력으로 백두산선군청년발전소와 과학기술전당을 비롯한 중요대상건설을 앞

절세위인들의 불멸의 반세전승업적을 백두산총대로 빛내어나가자

조선인민군 육군, 해군, 항공 및 반항공군, 전략군 장병들의 결의대회 진행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과 김정일대원수님의 불멸의 반세전승업적을 깊이 빛내이며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의 령도따라 조국통일대업을 기어이 이룩할것을 맹세하는 조선인민군 육군, 해군, 항공 및 반항공군, 전략군 장병들의 결의대회가 24 일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 교양마당에서 진행되었다.

대회장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태양상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태양상이 모셔져있었다.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 혁명사상 만세!»,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 만세!»라는 구호판들이 대회장에 세워져있었다.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반세전승업적을 총대로 더욱 빛내어나가자!», «위대한 김정은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를 목숨으로 사수하자!», «전화의 나날에 발휘된 영웅적사들의 불멸의 투쟁정신을 직극 따라배우자!» 등의 구호판들이 세워져있었다.

기발양대에는 조선로동당기와 공화국기들이 나뭇기있었다.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 중심주제 《승리》상방열에는 조선인민군 육군, 해군, 항공 및 반항공군 군인들이 세워져있었으며 명예위병들이 서있었다.

대회에는 황병사동지, 박영식동지, 리영길동지와 조선인민군 지휘성원들, 육군, 해군, 항공 및 반항공군, 전략군 장병들, 각급 군사학교 학생들이 참가하였다.

«김일성장군의 노래»와 «김정일장군의 노래»주악으로 결의대회는 시작되었다. 결의대회에서는 조선인민군 총참모장인 육군대령 리영길동지가 연설하였다. 연설자는 온 나라 천만군민이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으로 10월의 대추진장을 향한 총공격전에서 기적과 혁신을 창조하고있는 격동적인 시기에 조국해방전쟁승리 62돐을 뜻깊게 맞이하고있는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그는 조국해방전쟁에서의 빛나는 승리는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의 주체적인 군사사상의 승리, 천재적이고 독창적인 전략술과 전법의 승리며 당의 투리에 굳게 뭉친 우리 군대와 인민의 불굴의 결전의 승리라고 강조하였다.



믿음직한 척추대, 억척의 지지점이 되어야 합니다.»

연설자는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반세전승업적을 깊이 빛내이며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령도따라 조국통일대업을 기어이 이룩할것은 백두산혁명강군의 성스러운 사명이라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전세 인민군장병들은 천재적인 군사사상과 비범한 령도로 반미전승의 신화를 창조하시고 전대미문의 사회주의수호전에서 백승을 떨쳐오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불멸의 위인상을 깊이 체득하고 대원수님들의 반세전승업적을 천세만에 빛내어나가야 한다.

전화의 나날 《김일성장군 만세!》를 소리높이 웨치며 육탄, 자폭도 서슴지 않던 영웅적사들의 수령결사옹위정신이 인민군 장병들의 심장마다에 새겨져 있듯이 하고 전군이 위대한 김정은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와 금수신대양군들을 결사옹위하여야 할것이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 제시하신 4대전략적선과 3대과업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총공격전을 힘있게 벌려 군력강화의 최전성기를 열어나가야 한다.

전군에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유일적령도체제를 더욱 반석같이 세우며 5대교양을 강화하여 모든 장병들을 우리 당의 사상이 깰 들어난 선군혁명의 전위투사로 든든히 준비시켜 영웅적조선인민군의 정치사상적위력을 백만으로 강화해나가야 할것이다.

인민군장병들은 «훈민혁명을 일으켜 인민군대를 백만 싸우면 백만 다 이기는 무적필승의 최정에혁명강군으로 만들자!»는 전투적구호를 높이 들고 백두산 혼련열들의 불가마속에서 김일성-김정일전략술사상과 영웅적투쟁정신, 완벽한 실천능력을 소유한 현대전의 능수, 전적배기싸움군으로 억세게 준비하여야 한다.

근위부대운동을 힘있게 벌려 전군의 모든 부대들을 정치사상적으로, 군사기술적으로, 물질적으로 완전무결하게 준비된 무적의 근위부대로 만들어야 한다.

«인민군대는 앞으로도 당의 령도따라 생선길을 앞장에서 헤치며 당의 위업을 총대로 굳건히 담보해나가는 선군혁명정

전통을 굳건히 이어오신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류제없는 엄격한 시련의 시기 독창적인 선군정치로 우리 인민군대를 일당백혁명강군으로, 선군혁명의 주력군으로 키우시고 우리 조국을 세계적 인 정치군사강국, 당당한 핵보유국, 인공지구위성제작 및 발사국으로 전진시키신것은 또 한차례의 전승을 이룩한것과 같은 거대한 민족사적업적으로 된다고 그는 강조하였다.

그는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반세전승업적은 또 한편의 천재제일명장인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께서 계시어 더욱

찬란히 빛나고있는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정력적인 령도로 우리 인민군대를 1950년대의 투쟁정신을 굳건히 계승한 정신력의 최강군으로, 우리 식의 위력한 타격수단들과 완벽한 실천능력을 갖춘 무적필승의 최정에혁명강군으로 끊임없이 강화발전시켜나가 고계신다고 그는 강조하였다.

그는 승리의 커다란 긍지와 자부심을 안고 전승 62돐을 맞이하는 천만장병들의 가슴마다에는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를 높이 모시며 최후승리를 반드시 우리의 것이라는 필승의 신념과 탄판이 끊어지지 않고 있다고 말하였다.

연설자는 조국청사에 영원히 빛날 반세전승의 자랑한 전통을 마련해주시고 우리 군대와 인민에게 승리의 영예를 안겨주신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과 김정일대원수님께 가장 숭고한 경의를 드렸으며 백두의 기상과 담력, 평활무쌍한 지략으로 반미대결전의 최후승리를 앞당겨오시는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께 삼가 최대의 영광을 드렸습니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인민군대는 앞으로도 당의 령도따라 생선길을 앞장에서 헤치며 당의 위업을 총대로 굳건히 담보해나가는 선군혁명정

조국해방전쟁의 위대한 승리를 안아오신 강철의 령장 김일성대원수님



↑전국의 일대 전환을 가져올 구상을 하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 주제39(1950)년 11월

←조국해방전쟁을 승리로 이끄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 주제42(1953)년 7월



모범전투원들을 만나주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 주제40(1951)년 6월



해안방어를 철벽으로 강화할데 대하여 연설하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 주제40(1951)년 4월



공화국영웅 및 모범전투원들과 담화하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 주제40(1951)년 6월



갱도작업장을 현지도하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 주제40(1951)년 10월



새로운 작전임무를 주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 주제40(1951)년 2월



강건군관학교를 현지도하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 주제41(1952)년 6월



전선을 찾으시어 인민군전투원들과 담화하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 주제40(1951)년 4월



정전협정문건에 비준하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 주제42(1953)년 7월



공화국영웅들속에 계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 주제42(1953)년 8월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승리 62돐에 즈음하여

시초

승리의 7.27은 이 땅에 흐른다

전승의 고향집앞에서

박헌철

저 낮은 추너우에
위대한 전승의 년대를 떠이고
오늘도 서있는 집
우리 수령님
조국해방전쟁을 승리로 이끄신
최고사령부 옛집이여!

삼가 경건해지는 이 마음
소박함과 승엄함에 눈곱짓누나
저 작은 창문으로
천리전선을 한눈에 내다보시며
전승의 기적을 창조하신
수령님의 그 영상이 어려오는 집

조용히 귀기울이면
들려오는듯
백두산장군의 우렁우렁한 그 음성
농들의 허장성세를 띠얹쳐뿔 밭으시며
이 땅을 거니시던
거룩한 그 발자욱소리...

그이 그어가신 붉은 화살표
적어가신 지점마다
미제의 《강대성》의 신화는 산산이
깨어지고
《불위의 선》들은 물결은 담벽처럼
무너졌더라
《하기공세》, 《추기공세》, 《신공세》
들이
추풍악처럼 훑날렸더라

빛발치는 천리해안으로
고지마다 승리의 만세를 더져오르고
주체의 명활한 전법들로
미제의 《상승사단》들을
삼심령 함정물에 처넣은

로 병들에게 영광을!

위명철

7월의 하늘이애
모여왔구나
전승절의 이날
원수님 불러주시는 평양으로
로병들이 왔구나

조국의 자랑인 로병들이여
아름답게 받으시라
꽃다발 꽃다발
그대들의 붉은 피 스민 땅에서
꽃게 붉게 피어나 꽃들이다

로병들의 가슴마다 절령이는
훈장과 메달의 눈부신 금빛으로
더 밝고 환해진 우리의 거리
그 훈장과 메달들을

백승의 최고사령부
김일성장군!
그이의 이름은
싸우는 조선의 승리의 기치!
그이 계시어
《희강》을 자랑하던 침략자 미제가
청소한 우리 공화국앞에 무릎을 꿇고
하늘과 땅 바다에서
배전의 고배를 마셨거니

땅속에 처박힌채
불발탄으로 굳어진 저 폭탄은
아메리카제국의 가련한 물결
미제를 발발에 던지고 서신 그이는
하늘이 낸 전설적명장

여기서 열리었다
축포가 오르던 7.27의 맑고 푸른 하늘
여기서 굽어쳐갔어라
강철의 군위부대들이
포연에 그늘린 위훈의 군기들을 펴떡이며
보무당양회 행진해가던 전승의 열병대오가

우리 수령님 한밤을 밝히시고
새벽창문을 여실 때마다
승리의 노을이 전 전선에 비껴가던 집
추너는 낮이도
백두명장의 배장과 신념이 하늘에 닿아
은 세계가 경탄으로 우러르는 집

수수하고 소박한
이 작은 집이
거만한 백악관과 펜타곤을 짓뭇개며
이 행성우에 영웅조선을 낳은
아, 위대한 전승의 고향집이여!

저 하늘에 높이 걸자
별처럼
해처럼

삼가 드리자 우리의 경의를
남으로 노도치던 전적의 길에
보병삼을 갈아세우고
관가리걸전에 뛰어들던 날과 날들에
《김일성장군 만세!》가 메아리치던
이름모를 고지들과 그 산밭들에

조국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가를
피와 목숨으로 새겨준 로병들이여
그대들은 물려주었다
영원한 피를기르 이어갈

불라는 조국수호정신
대를 이어 떨쳐갈 승리의 전통을
위대한 그 전통은

불라는 고지의 랑만

류금석

하늘도
불에 타서 쏟아지는가
청소한 우리 공화국앞에
하늘과 땅 바다에서
배전의 고지는 불의 고지

미친듯 퍼붓는 폭탄과 포탄들
불더미
재더미들
포다시 파헤칠 때
우리네 땅에 던지고 서신 그이는
동기당양회 화선악기 노래소리

불같은 고지를 휘감았는데
시원한 화선의 강도안엔
회한해라 호호한 콩나물풍경
관공등잔 불심지 불구며
그리운 얼굴들을
고향의 편지속에 안아보는 용사들
양기들을 조소하며 배심종재 웃고있는데

고지에 또다시 원수를 덤벼들면
어디서 솟았는가 불사조들

미제의 운명 거머이 끝장낼
불제의 힘
불멸의 정신으로 빛받친다
영광 영광을 로병들에게!

침략자무리항해 불벼락을 들뜨우고
연기처럼 사라지니
통쾌하다
신출귀몰하는 우리의 강도전

그 별처럼전법
하늘에 걸치면
적기들은 불맛은 까마귀되고
바다에 걸치면
움직이는 섬 《블리모》호도 물거신되는
명활무쌍한 수령님 전법

불만 하다 땅우에선
세늘들이 파헤친 포탄자리마다
멸망의 무덤을 만드는 농들
눈먼 포탄들에 고지는 낮아져도
마음속엔 승리봉이 솟아거거니

아, 고지는 불에 타도
용사를 웃음소린 드높았네
제 지른 불속에서 아우성치는
아메리카를 굶어보며!

승리자

최광일

잠시라도
그날의 격전장 떠나면
포다시 이 땅에 포연이 흐를것만 같아
전승기념할 승리상야애
청춘의 모습으로 오늘도 서있는가
영웅전사들이여

수류탄 입에 물고
적전에 뛰어들며
애절한 가슴으로
불뿔은 적화점을 막아서던 그 모습으로
오늘도 서있는 영웅들
리수부, 강호영, 조근실...

블러보고싶구나
격려를 앞두고
최고사령관동지께 드리는 맹세문에
심장으로 적어가던 그 이름들
총창을 비껴들고
육박전에 뛰어들던 전사들을

천이라 만이라
청춘도 생명도 서슴없이 이 나라
이들딸들
오직 승리를 위하여

원주적멸의 폭음들이
한목숨 웃으며 바친
유령무명의 영웅전사들은

승리의 메부리로 솟아있는
영웅고지들과 함께
미제의 멸망의 시초를 열어놓은
전승의 년대와 함께
조국청사에 빛나는 그대들의 이름은
오직 하나로만 불리운다
승리자!

적편이 비발치는 고지로 치달으며
전우의 손에서 넘겨받던 그 기발처럼
너와 나 우리가
그리고 우리 후손들이
혁명적 계주봉을 이어받음
용사들의 고귀한 이름이여

그렇다
승리자!
그 이름은
최후의 반미성전에서 용맹명철
김정은장군의 아들딸
오, 우리들의 이름이다

화선천리 황명성

물지 말라
군화군을 조여매고
오늘도 걷는 병사의 혼연길
시작은 어디고 끝은 어딘지

물지 말라
땅에 젖은 군복을 벗을새없이
어찌하여
혼연길 가고 또 가는지

자욱자욱 피를 뿌리고 목숨바치며
할아버지 아버지세대가
넘고 해쳐온 산과 강들이
이 길에 이어졌었다
병사의 혼연길은 그날의 화선천리

그날의 불라는 락동강모래밭이
걸음걸음 군화밑에 밟히는 길
비발치는 적탄막을 헤치며
서슴없이 내뿜 전우의 등을 밟고
철조망을 넘던 그 피어던 돌격로
병사가 날아넘는 칼벼랑길에 이어졌어라

처늘들이 쫓겨온 혼드는 들판
아이들의 노래소리 울리는

거리와 마을을 지난다
병사의 마을에 포연이 걸린다면
아, 그 모든것 불속에 잠기리

병사의 군화소리 울리는 길은
어제도 오늘도 판자씨우물길
이 길에서 날리는 명사수의 총탄은
결전의 날 미제의 가슴팍을 꿰뚫으리
산밭을 뒤흔드는 명포수의 포성은
미국을 통째로 바다밑에 수장하리

구름속을 뚫고 은빛매가 날오는 하늘길
파도를 헤가르며 함선이 내달는 바다길
무쇠철갑이 질풍처럼 달리는
그 모든 산밭과 강하들이
멸적의 피성 울리며
화선천리로 뻗어있나니

평화로운 날에도 불비속을 걸으며
최후승리의 그날까지
병사는 군화를 벗지 않으리
조국을 위해 미래세대를 위해
멈추지 말라 병사여
화선천리! 화선천리!

승리의 7.27은 이 땅에 흐른다

주광일

전승의 날
세계의 변전에서
미국놈의 성조기를 짓밟고 선
승리자들의 머리우에
축포가 머저오르던
위대한 전승의 날!

7.27!
그날은 하루였어도
전승의 축포는 어느 하루도
우리 마음속에 맞은적 없었구나
침략의 불구름을 치물아내며
반미대결전에서
변전전승의 통장흔을 부르며

승리의 7.27은 이 땅에 흐른다
전선에서 전선으로 질주하는
야전차의 불빛에 실려
침략자들의 아성을 향해
불꽃처럼 뻗어가는
최고사령부의 붉은 화살표애
백두산칼바람을 일으키는 혼연장들에

전회의 불비 헤쳐가시던
수령님의 그 모습으로
백승의 자욱을 새겨가시는
김정은장군의 발걸음을 따라
승리의 날과 달이 흐른다

동에 번쩍 서에 번쩍
이 행성을 뒤흔들던

장군님의 그 전선길에서
악의 제국 미제를 다물러대시는
우리 원수님의 전선소식은
승리자의 환희를 안겨주는 전승소식!

통쾌하다
멸적의 불을 뿜으며
대공으로 솟아오른
관도란의 불꽃기
날바다우에 메아리쳐가던
백두명장의 호랑한 웃음소리

원수님의 품속에서 태어난
하늘의 꽃
첫 너성초음속전투기비행사들
명포수메달을 전승메달인양 번쩍이며
원수님 품에 안긴 혼연영웅들은
은 나라의 기쁨
선군조선의 자랑

오만한 미제의 선물질을
무자비한 핵성광으로 쳐갈기며
침략자들을 정의의 불로 다스리는
이 땅은 최후승리의 반미대결장!

영웅조선의 날과 날은
어제도 오늘도 매일도 전승의 날
김정은장군님 이끄시는 이 조선
하늘과 땅 바다에
7.27은 흐른다
오, 승리의 7.27은 흐른다

청년중앙예술선전대 경축공연 진행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승리
62돐경축 청년중앙예술선전대
공연이 24일 청년중앙회관에서
진행되었다.

공연장소는 위대한 년대의 승
리자들이 지녔던 1950년대 조
국수호정신을 계승하여 사회주
의주의의 전구마다에서 조선
청년의 슬기와 용맹을 남김없이
펼쳐가고있는 청년들의 희열과
방만으로 끓어번지고있었다.

《7.27행진곡》으로 시작된
공연 무대 에는 소 함창
《김일성장군 만만세》, 대화
시 《전승의 메아리》, 너성독창
과 방창 《선군님리리》, 너성독
창 《가리라 백두산으로》, 요술
《경축의 꽃바구니》를 비롯한
다채로운 종목들이 울렸다.

출연자들은 탁월한 군사사상
과 독창적인 전략기술, 비범한
평균술로 우리 군대와 인민을

현명하게 이끄시어 조국해방전
쟁의 승리를 안아오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장군과 선군의 기치
높이 백승의 역사와 전통을 끝
없이 빛내어오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불멸의 업적을 격
조함이 구가하였다.

시창송과 경음악 《결전의 길
로》, 너성3중창 《애봉선의 노
래》, 남성독창 《진호수의 나
의 노래》 등의 종목들은 관람
자들로 하여금 불비뿐이던 전
회의 나날 당과 수령, 조국파인
민을 위해 한몸이 그대로 육탄
이 되어 한치한치의 땅을 피로
써 지켜싸운 인민군용사들의 영
웅적투쟁을 감회깊이 돌이켜보
게 하였다.

출연자들은 미제가 또다시 이
땅에서 침략전쟁의 불을 지른다
면 주체조선의 명예를 걸고 항
복서에 도장을 찍은 농도 없이

무자비하게 죽창쳐버리고 조국
통일의 역사적위업을 거머이 실
현하고야말 신념과 의지를 담성
중창 《수령이시여 명령만 내리
시라》, 혼성중창 《전선행렬
차》에 담아 펼쳐었다.

합창시와 소 함창 《승리는
대를 이어》, 《김정은장군 목
숨으로 사수하라》로 끝난
공연은 위대한 김일성장군과
김정일동지의 불멸의 전승업적
과 반제혁명업적을 만대대 길이
빛내이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
의 령도따라 청년강국의 위용을
높이 떨치며 최후승리의 7.27
을 안아오야말 선군조선청년
전위들의 정신세계를 잘 보여주
었다.

리일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
회 부장, 관계부, 청년동맹 일
군들, 청년학생들이 공연을 관
람하였다.

농업근로자들의 경축공연

《승리는 대를 이어》 진행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승리
62돐에 즈음한 농업근로자들의
경축공연 《승리는 대를 이어》
가 24일 은산군 계천리에서 진
행되었다.

리명길 농근맹중앙위원회 위
원장, 차병영 평안남도당위원회
비서, 관계부, 인민군, 은산군
인민 농업근로자들이 공연을 관
람하였다.

당과 수령의 현명한 령도밑에
세계 제국을 사수한 영웅적인
민들의 기상과 긍지가 차나치는
가운데 공연은 시와 합창 《우
리의 7.27》, 《김일성장군 만
만만세》로 시작되었다.

출연자들은 비범한 군사전법
과 탁월한 평균술로 미제를 피
수로 하는 제국주의반혁명세력을

타승하고 공화국의 존엄과 영
예를 만방에 떨쳐주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장군지의 불멸의 전승
업적을 높이 칭송하였다.

그들은 조국의 혼도를 피로써
사수할때 대한 위대한 수령님의
호소를 심장으로 받들고 이 땅
에서 세계전쟁사에 일찌기 없었
던 전승신화를 창조하며 높이
발휘한 우리 군대와 인민의 투
쟁정신과 모습을 전시가요연곡
《애안포의 노래》, 《열풍소
야 이서 가지》, 《샘물터에서
》, 《우리 님 영웅되셨네》
등의 종목들이 울렸다.

공연무대에는 반미대결전, 사
회주의의수호전의 위대한 년대기
《애안포의 노래》, 《열풍소
야 이서 가지》, 《샘물터에서
》, 《우리 님 영웅되셨네》
등의 종목들이 울렸다.

출연자들은 비범한 군사전법
과 탁월한 평균술로 미제를 피
수로 하는 제국주의반혁명세력을

국》, 광고명창 《선군님리
리》, 제단 《경쟁열풍》, 민요
연곡 《결명의 사파바다》,
《바다 만풍가》를 비롯한 다
채로운 종목들이 번이여 펼쳐
었다.

전투적기백과 열정이 맥박치
는 공연을 보면서 관람자들은
1950년대의 조국수호정신으로
뜻깊은 올해농사를 본뜬이게 지
어 나라의 쌀독을 책임진 주인
으로서의 본분을 다해갈 결의를
가다들었다.

회사의 선군명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사상과 령도를
충직하게 받들어 위대한 전승
의 역사적 길이 빛내어갈 전제
농업근로자들과 농근맹원들의
역혁본분의 의지를 반영한 시
와 합창 《7.27행진곡》,
《김정은장군 목숨으로 사수하
리라》로 공연은 끝났다.

비행장에서 관계부, 인민군과
주조 헬남사회주의공화국 특명
전권대사가 맞이하였다.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승리

62돐경축 녀맹일군들과 녀맹원들의 전시가요무대
《영원한 조선의 승리》 진행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승리
62돐경축 녀맹일군들과 녀맹원들의 전시가요무대
《영원한 조선의 승리》가 24일 전승혁
명사적관 교양마당에서 진행되
었다.

공연무대에는 시와 합창 《우
리의 7.27》, 《김일성장군 만
만만세》, 시 이야기 《전호수의
메아리》, 3중창과 합창 불후의
고전적명작 《축복의 노래》,
기악과 노래연곡 《조국부리의
노래》, 《진군 포진군》, 《결
전의 길로》 등 다채로운 종목
들이 울렸다.

출연자들은 주제적인 군사사
상과 리론, 전법들을 창조하시
어 조국해방전쟁에서 역사적 일
찌기 잊지 못하는 군사적기적을
이룩하시고 승리의 7.27을
안아오신 위대한 김일성장군의
불멸의 업적을 높이 칭송하
였다.

민요제창 《선군승리 용
해야》, 설화와 합창 《위대한
그 이름은 승리의 기치》,
《승리는 대를 이어》 등의
종목들을 보면서 관람자들은
백두산출생장들을 모시어

전승컵 전국레권도강자경기대회 폐막

지난 7월 17일에 개막되었
던 전승컵 전국레권도강자경
기대회가 폐막되었다.

이번 경기대회에 출전한 태
권도, 바둑선수들은 평시에 면
마해는 높은 기술과 투지를 남
김없이 발휘하여 좋은 성과를
를 거두었다.

폐막식이 24일 사리원시
에서 진행되었다.
리원중 황해북도당위원회
비서, 관계부, 인민군, 체육
인들, 청년학생들이 여기에 참
가하였다.

녀맹일군들과 녀맹원들의 전시가요무대

《영원한 조선의 승리》 진행

신군으로 존엄높은 우리 조국이
세기와 년대를 이어온 반미대결
전에서 백승만을 떨쳐올수 있었
음을 다시금 절감하였다.

무대에는 조국의 운
명을 판가리하는 준엄
한 전회의 나날 전선
과 후방에서 전승의
승리를 위해 모든것을
다 바쳐싸우 우리 녀
성들의 불굴의 투쟁정
신과 방만적인 생활파
습을 반영한 독창과
방창 《어미의 노래》,
5중창과 합창
《샘물터에서》, 《봄
노래》, 독창과 합창
《우리 님 영웅되셨
네》를 비롯한 종목들
이 펼쳐졌다.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과
조국수호정신으로 가
슴 불태우며 오늘의

녀맹일군들과 녀맹원들의 전시가요무대

《영원한 조선의 승리》 진행

하루하루를 값있게 밟아갈 우
리 녀성들의 드림없는 의지가
비건 북과 합창 《가리라
백두산으로》, 《중어도 혁명
심 버리지 말자》는 관람자들의
심금을 세차게 울려주었다.
김일성 수령님과 녀맹일군들과
녀맹원들의 혁명적열의를 잘
보여주었다.

무대에는 조국의 운
명을 판가리하는 준엄
한 전회의 나날 전선
과 후방에서 전승의
승리를 위해 모든것을
다 바쳐싸우 우리 녀
성들의 불굴의 투쟁정
신과 방만적인 생활파
습을 반영한 독창과
방창 《어미의 노래》,
5중창과 합창
《샘물터에서》, 《봄
노래》, 독창과 합창
《우리 님 영웅되셨
네》를 비롯한 종목들
이 펼쳐졌다.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과
조국수호정신으로 가
슴 불태우며 오늘의

《김정은장군 목숨으로 사수

하라》로 끝난 공연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에
따라 10월의 대승전을 뜻깊게
맞이하기 위한 오늘의 총공격
전에서 조선녀성의 기개를 남
김없이 펼쳐갈 녀맹일군들과
녀맹원들의 혁명적열의를 잘
보여주었다.

이러한 때 선군구역 산업종합
전로소 의사 율명희선생님이 저
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언제나
전정로병합미리라고 각별히 대
해주던 그 친혈육같은 호담당의
사를 불안고 가족들은 눈물만
흘렸습니다.

후에 안 일이지만 어린 딸에
를 친정집에 맡겨놓은 그는 저
의 건강이 회복될 때까지 치료
를 계속할것을 결심하였습니다.

이때부터 그는 매일과 같이 교열
과 마음으로 잠 못드는 저를 위해
밤을 꼬박기 새웠습니다.
담당주인들의 건강관리를 위
해 바쁜 시간을 보냈던 그는
는 상급병사들을 비롯한 여러
단위들을 찾아다니며 치료방도
를 모색하곤 하였었습니다.
수기치료까지 배워가며 정
성을 기울이는 그의 모습에서 저

는 전회의 나날 날아오는 파편을
몸으로 막으며 부상병들을 총
하고 자기의 피와 살을 바쳐
전우들의 생명을 이어주던 잊
지 못할 화선군의들을 생각하
였습니다.

사실 제가 이전처럼 한집안식
구들과 어울려 웃놀이도 하면서
또다시 락을 누리리라고 누가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어제날 화선군의들이 넣어준
피가 꺼져가던 저의 생명을 이
어주었다면 오늘은 바로 세 세
대 보진일군의 뜨거운 정성이
고목에도 꽃을 피우는 기적을
창조하였습니다.

평범한 한 호담당의사에 대한
고마움이 커갈수록 의사당구역
제를 실시하여 주민들의 건강을
정성적으로 돌보아주고 치료대책
을 세워주는 내 조국이 더없이 소
중하게 느껴집니다.

세상에 가장 우월한 사회주
의제도에 살고있기에 전 두만다
시 태어났습니다.
전정로병 배 용 녀

《김정은장군 목숨으로 사수
하라》로 끝난 공연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에
따라 10월의 대승전을 뜻깊게
맞이하기 위한 오늘의 총공격
전에서 조선녀성의 기개를 남
김없이 펼쳐갈 녀맹일군들과
녀맹원들의 혁명적열의를 잘
보여주었다.



《김정은장군 목숨으로 사수
하라》로 끝난 공연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에
따라 10월의 대승전을 뜻깊게
맞이하기 위한 오늘의 총공격
전에서 조선녀성의 기개를 남
김없이 펼쳐갈 녀맹일군들과
녀맹원들의 혁명적열의를 잘
보여주었다.

이러한 때 선군구역 산업종합
전로소 의사 율명희선생님이 저
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언제나
전정로병합미리라고 각별히 대
해주던 그 친혈육같은 호담당의
사를 불안고 가족들은 눈물만
흘렸습니다.

후에 안 일이지만 어린 딸에
를 친정집에 맡겨놓은 그는 저
의 건강이 회복될 때까지 치료
를 계속할것을 결심하였습니다.

이때부터 그는 매일과 같이 교열
과 마음으로 잠 못드는 저를 위해
밤을 꼬박기 새웠습니다.
담당주인들의 건강관리를 위
해 바쁜 시간을 보냈던 그는
는 상급병사들을 비롯한 여러
단위들을 찾아다니며 치료방도
를 모색하곤 하였었습니다.
수기치료까지 배워가며 정
성을 기울이는 그의 모습에서 저

는 전회의 나날 날아오는 파편을
몸으로 막으며 부상병들을 총
하고 자기의 피와 살을 바쳐
전우들의 생명을 이어주던 잊
지 못할 화선군의들을 생각하
였습니다.

반제반미투쟁의 승리의 역사를 열어놓은 조선의 7.27

미제의 <강대성>의 신화를 여지없이 깨버린 강철의 령장

승리의 7.27이 다가오고있다. 우리 인민이 아니라 온 세계 진보적인 류가 이날을 경축하고있다.

지금으로부터 62년전 우리 군대와 인민은 세계력사에서 처음으로 미제의 <강대성>에 대한 신화를 깨뜨리는 군사적기적을 창조하고 위대한 승리를 이룩하였다. 조국해방전쟁에서의 우리 군대와 인민의 승리는 반제반미투쟁의 새로운 양상의 시대를 열어놓고 제국주의식민주의의 종국적파괴과정을 촉진시킨 역사적사건으로 되었다.

바로 이날이 있음으로 하여 세계의 평화와 안전이 굳건히 수호되고 인류사주위업을 위한 투쟁은 새로운 높은 단계에 올라가게 되었다.

이 모든 성취는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인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의 결과이다.

하기에 우리 인민과 세계 진보적인 인구는 승리의 7.27을 잊을 때까지만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불멸의 업적을 가슴깊이 새겨두고 다짐하는 감사와 경의를 드리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 우리 인민군대와 인민은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하에 대승적영웅주의와 자기희생정신을 발휘하여 무력으로 나 기술적으로 우세한 미제침략군을 때려부시고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영예롭게 수호하였습시다.》

승리가 알지 못하는 가장 잔인한 방법을 다 적용하였다.

온 세계가 전쟁의 첫시작부터 불안과 우려를 가지고 조선을 지켜보았다. 과연 조선이 <강대성>을 자랑하는 미국의 무력침공에 어떻게 대응해나설것인가. 전쟁의 결과는 어떻게 될것인가. 이것은 결코 공연한 우려가 아니었다. 그것은 조선전쟁이 우리 인민의 운명뿐 아니라 반제자주위업의 전도와 관련되는 매우 심각한 문제였기 때문이었다. 바로 이러한 때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는 주제 39(1950)년 6월 25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비상회의에서 적들의 야만적인 침략전쟁에 우리는 해방전쟁으로 대답하여야 한다고,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것이라고 엄숙히 선언하시였다.

세계는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연설에서 그 어떤 퇴색력에도 드는것 없애고, 그의 신념과 의지, 무비의 담력과 배짱을 보았다.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 인민의 승리의 필연성을 확신하였다. 그것은 곧 현실로 되었다.

주제 39(1950)년 6월 26일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는 《모든 힘을 전쟁의 승리를 위하여》라는 역사적인 방공연설로 전세계 군대와 인민을 미제와의 만가리결전에, 조국해방전쟁의 승리로 힘있게 불러일으키시였다.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는 전쟁승리의 결정적요인을 병력의 수나 무장장비에서 찾지 않으시였다.

조국해방전쟁이 시작된지 얼마 되지 않은 주제 39(1950)년 7월 1일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는 외국인의 힘을 수호하기 위한 준비를 철저히 하였다고, 미제는 조선전쟁에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인적, 물적자원을 모조리 끌어모아 조선전에 투입하고 인류전

군대는 정당한 위업을 위하여, 자기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위하여 미제침략자와 그 앞잡이들을 반대하여 싸우고있다고, 오메타단 식민지적압박을 받아온 조선인민은 미제국주의자들의 노예로 될것을 바라지 않는다. 조선인민군이 전체 조선인민의 힘입어 전후의 지지를 받으며 또 전세계 진보적인민들의 지지와 성원을 받으며 싸우고있고 미제와 그들의 수괴를 물리칠수 있다고 힘주어 말씀하시였다.

바로 이것이였다.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는 전쟁승리의 결정적요인을 우리 군대와 인민의 강한 정신력에서 찾으시고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나가시였다.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 밑에 전체 인민군병들과 후방인민들은 조국을 위하여 무비의 헌신성과 희생성, 대중적영웅주의를 발휘하며 원수적행의 성전에 파죽이소리쳤다. 우리 인민의 조국해방전쟁은 전진전쟁으로 확고히 전진하였다.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는 전쟁 전 기간 탁월한 군사전략과 전술, 병군술로 미제침략자들에게 연속적인 군사적타격을 가하시였다.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주제적 군사적수적, 군사기술적우세를 정초치도덕적, 전략전술적우세로 타당한 전략을 확고히 견지하신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는 정규군과 유격전, 대부대전과 소부대전의 배합, 산악전과 야간전, 강도전 등 독자적인 전법들을 창조하시어 전쟁승리의 확고한 담보를 마련하시였다.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주제적인 전략전술과 전법앞에서 미제의 수적, 군사기술적우세는 너무나도 무력하였다. 미제의 <상승사단>이나 <하늘의 요새>도, <마더우에 퍼다 나는 섬>도 미국을 패배의 운명에서 구원하지 못하였다.

전쟁 전기간 미제는 원배를 맞고 녹아나기만 하였고 우리는 수적, 군사기술적우세를 믿고 무리없이 남뛰는 미제를 용감하게 쳐대기만 하였다. 미제는 술한 주검을 남기고 패배의 처욕을 당하였다.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탁월한 령도 밑에 우리 군대와 인민은 수적으로나 군사기술적으로도 미제와 맞먹지 않았지만 미제를 때려부시고 조국의 자주권을 영예롭게 수호하였다.

침략전쟁에서 단 한번의 패배도 몰랐다고 으스스대던 미제는 조선전쟁에서 처음으로 참패의 기록을 남겼다. <강대성>의 신화는 휴지통에 구겨버렸다.

우리의 승리는 전적으로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와 탁월한 전략전술과 전법에 의하여 마련된것이었다. 미국의 어느 한 비평가 보고서에는 다음과 같이 지적되어있다.

《지난 조선전쟁은 김일성장군의 전법에 의하여 미국이 패하고 미국의 장성들이 제일 많이 죽고 절친된 전쟁으로 특징지어졌다. 김일성장군의 전법이 얼마나 유명한지 3년간의 전쟁에서 그 전법에 걸려 패한 코리여 리령의 <유연군> 사령관들과 미8군사령관들이 고백하였다. 마지못해는 들이밀 장성이 없었다. <이름난 원수>라고 하던 맥아더와 아이젠하워도 그 전법에 걸려 패하고말았다.》

조선전쟁의 결과는 세계를 놀래켰다. 이것은 말그대로 군사적기적이었고 20세기의 역사적사건이었다.

이 위대한 사건으로 하여 조선반도를 발판으로 하여 세계를 제패하려던 미제의 야망은 산산이 부서지고 세계의 평화와 안전이 수호되었다.

반제반미투쟁, 민족해방투쟁의 새로운 양상이 펼쳐지고 제국주의식민주의의 붕괴과정이 촉진되어 인

류사주위업에서 역사적전환이 일어났다. 조국해방전쟁에서의 우리 인민의 승리는 식민주의해방투쟁의 기지로 되었다.

우리 인민의 승리에서 힘을 얻은 식민주의국가에서 민족해방투쟁, 반제반미투쟁이 새세계 일어났다. 아시아, 아프리카는 물론 미국의 <고요한 뒤쪽>이라고 불리우던 라틴아메리카에서도 식민주의해방투쟁, 반제자주를 위한 투쟁의 불길이 세차게 타올랐다. 세계적범위에서 제국주의식민주의체제가 붕괴되어 반제자주를 위한 세계 진보적인류의 투쟁은 더욱 양양되고 새로운 발전의 궤도에 확고히 들어섰다.

참으로 우리 군대와 인민의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을 현명한 령도하시어 세계 <희망>을 자랑하는 미제의 거대한 코드를 꺾고 반제자주위업의 새로운 양상의 시대를 열어놓으신 김일성동지의 불멸의 업적은 이 세상 그 어느 위인도 이룩하지 못한 세계사적공헌으로 된다.

우리 조국과 인류사주위업을 위하여 쌓으신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불멸의 업적은 오늘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선군령도에 의하여 빛나게 계승되고 있다.

김일성동지의 탁월한 령도 밑에 미제의 함복사를 받아낸 지난 세계 승리의 7.27의 전통을 대를 이어 빛내이며 미제와의 대결전에서 새 세계의 7.27을 인양시키려는것은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확고한 결심이다.

백두의 천출위인이신 선군령도의 김일성동지께서 계시는 선군조선의 승리의 역사와 전통은 줄기차게 이어질것이며 반제자주위업에 쌓으신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업적은 길이 빛날것이다.

지난 조국해방전쟁은 처음부터 세계의 이복을 집중시켰다. 이 전쟁은 말그대로 정소한 국가와 <초대국> 사이의 보복상식을 벗어난 대결이었다. 정규군으로 개편된지 얼마 안되는 군대와 세계제패를 꿈꾸는 대군파의 전쟁, 청소년 일제국과 연합국사회의 이 대결에서 과연 누가 승리가 될것인가.

미제는 처음부터 <승리는 저들의것> 인듯이 호언장담하였다. 하지만 전쟁의 그날날 세계가 확인한것은 승리는 조선인민들의것이였다.

조국해방전쟁이 한창이던 어느날 우리 나라에 와있던 한 외국자가 미제의 대주모자 <신공세>와 관련하여 앞으로의 전쟁전망이 어떠하겠는가를 알고싶어 최고사령부에 찾아왔다. 그날 그가 받은 총첩은 너무도 컸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작전태양에서 전후 복구건설을 위해 공부하러 떠나보낸 한 병사의 학승정명을 로해하고계시는것이 아닌가.

위대한 수령님을 우러르던 그는 조용히 최고사령부를 내다보았다. 뒤따라 나온 일꾼이 왜 그러느냐고 다급히 묻자 그는 이렇게 말했다.

《됐습니다. 나는 이미 취재를 끝냈습니다. <신병의 대결>에서 승리한 조선, 김일성동지는 전후복구건설을 위해 공부하러 떠나보낸 한 병사의 학승정명을 로해하고계시는것이 아닌가.》

아직은 그 누구도 전쟁의 승패에 대하여 가능성 없었던 그 엄숙한 시기에 매일의 회화 한 실체도를 마련해가고계시는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호모의 불같은 열정을 지어 펴고계시던 그 당시의 모습은 아직도 가슴에 새겨져있다. 주제 41(1952)년 8월 12일 전쟁, 매리코전쟁, 미국-에스빠나전쟁 및 필리핀전쟁에서 입은 손실을 다 합친것보다 2배 이상 더 많다. 그리고였다. 실제로 실제 손실은 조선전쟁에서 미군 군사력관 계 <유연군> 사령관 40명, 5490여명을 포함한 156만 7120여명의 병력을 잃고 1만 220여대의 비행기, 3250여대의 탱크 및 장갑차, 1만 3350대의 자동차, 560여대의 합선된 선박, 7690여톤의 곡, 92만 5150여점의 저격무기를 잃었다.

미제는 지난 조선전쟁의 교훈을 잊지 말아야 한다. 만일 미제가 또다시 제2의 조선전쟁의 불을 지른다면 패전의 비참상은 그들의 변함없는 소욕물로, 처절한 고통의 유산으로 영원토록 남아있을 것이다.

위대한 선군령명을 모시고 있는 한 우리의 정승의 역사는 영원히 흐를것이다.

조국해방전쟁은 처음부터 세계의 이복을 집중시켰다. 이 전쟁은 말그대로 정소한 국가와 <초대국> 사이의 보복상식을 벗어난 대결이었다. 정규군으로 개편된지 얼마 안되는 군대와 세계제패를 꿈꾸는 대군파의 전쟁, 청소년 일제국과 연합국사회의 이 대결에서 과연 누가 승리가 될것인가.

미제는 처음부터 <승리는 저들의것> 인듯이 호언장담하였다. 하지만 전쟁의 그날날 세계가 확인한것은 승리는 조선인민들의것이였다.

조국해방전쟁이 한창이던 어느날 우리 나라에 와있던 한 외국자가 미제의 대주모자 <신공세>와 관련하여 앞으로의 전쟁전망이 어떠하겠는가를 알고싶어 최고사령부에 찾아왔다. 그날 그가 받은 총첩은 너무도 컸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작전태양에서 전후 복구건설을 위해 공부하러 떠나보낸 한 병사의 학승정명을 로해하고계시는것이 아닌가.

위대한 수령님을 우러르던 그는 조용히 최고사령부를 내다보았다. 뒤따라 나온 일꾼이 왜 그러느냐고 다급히 묻자 그는 이렇게 말했다.

《됐습니다. 나는 이미 취재를 끝냈습니다. <신병의 대결>에서 승리한 조선, 김일성동지는 전후복구건설을 위해 공부하러 떠나보낸 한 병사의 학승정명을 로해하고계시는것이 아닌가.》

아직은 그 누구도 전쟁의 승패에 대하여 가능성 없었던 그 엄숙한 시기에 매일의 회화 한 실체도를 마련해가고계시는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호모의 불같은 열정을 지어 펴고계시던 그 당시의 모습은 아직도 가슴에 새겨져있다. 주제 41(1952)년 8월 12일 전쟁, 매리코전쟁, 미국-에스빠나전쟁 및 필리핀전쟁에서 입은 손실을 다 합친것보다 2배 이상 더 많다. 그리고였다. 실제로 실제 손실은 조선전쟁에서 미군 군사력관 계 <유연군> 사령관 40명, 5490여명을 포함한 156만 7120여명의 병력을 잃고 1만 220여대의 비행기, 3250여대의 탱크 및 장갑차, 1만 3350대의 자동차, 560여대의 합선된 선박, 7690여톤의 곡, 92만 5150여점의 저격무기를 잃었다.

미제는 지난 조선전쟁의 교훈을 잊지 말아야 한다. 만일 미제가 또다시 제2의 조선전쟁의 불을 지른다면 패전의 비참상은 그들의 변함없는 소욕물로, 처절한 고통의 유산으로 영원토록 남아있을 것이다.

위대한 선군령명을 모시고 있는 한 우리의 정승의 역사는 영원히 흐를것이다.

《승리만을 떨쳐온 조선의 전통》

어제도 그러하였지만 오늘도 우리 군대와 인민은 조미대결전에서 승리만을 이룩하고있다. 이것은 전적으로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현명한 령도의 결과이다. 하기에 세계 진보적인 인구는 조선인민이 경애하는 김정일동지를 높이 모시어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 인도하신 진승의 역사, 조미대결전의 승리의 전통을 끝없이 이어질것이며 조선의 승리의 7.27은 길이 빛날것이라고 확신하고있다.

인디아주제철폐연구위원회 위원장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조선은 김일성주석의 천재적인 전략과 현명한 령도 밑에 모든 예상과 상식을 깨뜨리고 미국의 침략을 물리쳤다.

그때로부터 60여년의 세월이 흘렀으나 미국의 대조선적대정책은 변하지 않았으며 미국은 조선반도에 새 전쟁의 불꽃을 몰아오고있다. 그러나 오늘날의 조선은 1950년대의 청소년 나라가 아니다. 조선은 령도자의 두리에 전진 군대와 인민이 일선단결된 정치사상강국이여 방위와 공격에도 다 준비된 군사강국, 핵보유국, 인공지구위성제작 및 발사국이다.

경애하는 최고 사령관 김정일동지께서 계시고 그의 령도하에

승리가 알지 못하는 가장 잔인한 방법을 다 적용하였다.

온 세계가 전쟁의 첫시작부터 불안과 우려를 가지고 조선을 지켜보았다. 과연 조선이 <강대성>을 자랑하는 미국의 무력침공에 어떻게 대응해나설것인가. 전쟁의 결과는 어떻게 될것인가. 이것은 결코 공연한 우려가 아니었다. 그것은 조선전쟁이 우리 인민의 운명뿐 아니라 반제자주위업의 전도와 관련되는 매우 심각한 문제였기 때문이었다. 바로 이러한 때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는 주제 39(1950)년 6월 25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비상회의에서 적들의 야만적인 침략전쟁에 우리는 해방전쟁으로 대답하여야 한다고,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것이라고 엄숙히 선언하시였다.

세계는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연설에서 그 어떤 퇴색력에도 드는것 없애고, 그의 신념과 의지, 무비의 담력과 배짱을 보았다.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 인민의 승리의 필연성을 확신하였다. 그것은 곧 현실로 되었다.

주제 39(1950)년 6월 26일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는 《모든 힘을 전쟁의 승리를 위하여》라는 역사적인 방공연설로 전세계 군대와 인민을 미제와의 만가리결전에, 조국해방전쟁의 승리로 힘있게 불러일으키시였다.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는 전쟁승리의 결정적요인을 병력의 수나 무장장비에서 찾지 않으시였다.

조국해방전쟁이 시작된지 얼마 되지 않은 주제 39(1950)년 7월 1일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는 외국인의 힘을 수호하기 위한 준비를 철저히 하였다고, 미제는 조선전쟁에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인적, 물적자원을 모조리 끌어모아 조선전에 투입하고 인류전

전쟁 전기간 미제는 원배를 맞고 녹아나기만 하였고 우리는 수적, 군사기술적우세를 믿고 무리없이 남뛰는 미제를 용감하게 쳐대기만 하였다. 미제는 술한 주검을 남기고 패배의 처욕을 당하였다.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탁월한 령도 밑에 우리 군대와 인민은 수적으로나 군사기술적으로도 미제와 맞먹지 않았지만 미제를 때려부시고 조국의 자주권을 영예롭게 수호하였다.

침략전쟁에서 단 한번의 패배도 몰랐다고 으스스대던 미제는 조선전쟁에서 처음으로 참패의 기록을 남겼다. <강대성>의 신화는 휴지통에 구겨버렸다.

우리의 승리는 전적으로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와 탁월한 전략전술과 전법에 의하여 마련된것이었다. 미국의 어느 한 비평가 보고서에는 다음과 같이 지적되어있다.

《지난 조선전쟁은 김일성장군의 전법에 의하여 미국이 패하고 미국의 장성들이 제일 많이 죽고 절친된 전쟁으로 특징지어졌다. 김일성장군의 전법이 얼마나 유명한지 3년간의 전쟁에서 그 전법에 걸려 패한 코리여 리령의 <유연군> 사령관들과 미8군사령관들이 고백하였다. 마지못해는 들이밀 장성이 없었다. <이름난 원수>라고 하던 맥아더와 아이젠하워도 그 전법에 걸려 패하고말았다.》

조선전쟁의 결과는 세계를 놀래켰다. 이것은 말그대로 군사적기적이었고 20세기의 역사적사건이었다.

이 위대한 사건으로 하여 조선반도를 발판으로 하여 세계를 제패하려던 미제의 야망은 산산이 부서지고 세계의 평화와 안전이 수호되었다.

반제반미투쟁, 민족해방투쟁의 새로운 양상이 펼쳐지고 제국주의식민주의의 붕괴과정이 촉진되어 인

류사주위업에서 역사적전환이 일어났다. 조국해방전쟁에서의 우리 인민의 승리는 식민주의해방투쟁의 기지로 되었다.

우리 인민의 승리에서 힘을 얻은 식민주의국가에서 민족해방투쟁, 반제반미투쟁이 새세계 일어났다. 아시아, 아프리카는 물론 미국의 <고요한 뒤쪽>이라고 불리우던 라틴아메리카에서도 식민주의해방투쟁, 반제자주를 위한 투쟁의 불길이 세차게 타올랐다. 세계적범위에서 제국주의식민주의체제가 붕괴되어 반제자주를 위한 세계 진보적인류의 투쟁은 더욱 양양되고 새로운 발전의 궤도에 확고히 들어섰다.

참으로 우리 군대와 인민의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을 현명한 령도하시어 세계 <희망>을 자랑하는 미제의 거대한 코드를 꺾고 반제자주위업의 새로운 양상의 시대를 열어놓으신 김일성동지의 불멸의 업적은 이 세상 그 어느 위인도 이룩하지 못한 세계사적공헌으로 된다.

우리 조국과 인류사주위업을 위하여 쌓으신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불멸의 업적은 오늘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선군령도에 의하여 빛나게 계승되고 있다.

김일성동지의 탁월한 령도 밑에 미제의 함복사를 받아낸 지난 세계 승리의 7.27의 전통을 대를 이어 빛내이며 미제와의 대결전에서 새 세계의 7.27을 인양시키려는것은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확고한 결심이다.

백두의 천출위인이신 선군령도의 김일성동지께서 계시는 선군조선의 승리의 역사와 전통은 줄기차게 이어질것이며 반제자주위업에 쌓으신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업적은 길이 빛날것이다.

지난 조국해방전쟁은 처음부터 세계의 이복을 집중시켰다. 이 전쟁은 말그대로 정소한 국가와 <초대국> 사이의 보복상식을 벗어난 대결이었다. 정규군으로 개편된지 얼마 안되는 군대와 세계제패를 꿈꾸는 대군파의 전쟁, 청소년 일제국과 연합국사회의 이 대결에서 과연 누가 승리가 될것인가.

미제는 처음부터 <승리는 저들의것> 인듯이 호언장담하였다. 하지만 전쟁의 그날날 세계가 확인한것은 승리는 조선인민들의것이였다.

조국해방전쟁이 한창이던 어느날 우리 나라에 와있던 한 외국자가 미제의 대주모자 <신공세>와 관련하여 앞으로의 전쟁전망이 어떠하겠는가를 알고싶어 최고사령부에 찾아왔다. 그날 그가 받은 총첩은 너무도 컸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작전태양에서 전후 복구건설을 위해 공부하러 떠나보낸 한 병사의 학승정명을 로해하고계시는것이 아닌가.

위대한 수령님을 우러르던 그는 조용히 최고사령부를 내다보았다. 뒤따라 나온 일꾼이 왜 그러느냐고 다급히 묻자 그는 이렇게 말했다.

《됐습니다. 나는 이미 취재를 끝냈습니다. <신병의 대결>에서 승리한 조선, 김일성동지는 전후복구건설을 위해 공부하러 떠나보낸 한 병사의 학승정명을 로해하고계시는것이 아닌가.》

아직은 그 누구도 전쟁의 승패에 대하여 가능성 없었던 그 엄숙한 시기에 매일의 회화 한 실체도를 마련해가고계시는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호모의 불같은 열정을 지어 펴고계시던 그 당시의 모습은 아직도 가슴에 새겨져있다. 주제 41(1952)년 8월 12일 전쟁, 매리코전쟁, 미국-에스빠나전쟁 및 필리핀전쟁에서 입은 손실을 다 합친것보다 2배 이상 더 많다. 그리고였다. 실제로 실제 손실은 조선전쟁에서 미군 군사력관 계 <유연군> 사령관 40명, 5490여명을 포함한 156만 7120여명의 병력을 잃고 1만 220여대의 비행기, 3250여대의 탱크 및 장갑차, 1만 3350대의 자동차, 560여대의 합선된 선박, 7690여톤의 곡, 92만 5150여점의 저격무기를 잃었다.

미제는 지난 조선전쟁의 교훈을 잊지 말아야 한다. 만일 미제가 또다시 제2의 조선전쟁의 불을 지른다면 패전의 비참상은 그들의 변함없는 소욕물로, 처절한 고통의 유산으로 영원토록 남아있을 것이다.

위대한 선군령명을 모시고 있는 한 우리의 정승의 역사는 영원히 흐를것이다.

승리가 알지 못하는 가장 잔인한 방법을 다 적용하였다.

온 세계가 전쟁의 첫시작부터 불안과 우려를 가지고 조선을 지켜보았다. 과연 조선이 <강대성>을 자랑하는 미국의 무력침공에 어떻게 대응해나설것인가. 전쟁의 결과는 어떻게 될것인가. 이것은 결코 공연한 우려가 아니었다. 그것은 조선전쟁이 우리 인민의 운명뿐 아니라 반제자주위업의 전도와 관련되는 매우 심각한 문제였기 때문이었다. 바로 이러한 때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는 주제 39(1950)년 6월 25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비상회의에서 적들의 야만적인 침략전쟁에 우리는 해방전쟁으로 대답하여야 한다고,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것이라고 엄숙히 선언하시였다.

세계는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연설에서 그 어떤 퇴색력에도 드는것 없애고, 그의 신념과 의지, 무비의 담력과 배짱을 보았다.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 인민의 승리의 필연성을 확신하였다. 그것은 곧 현실로 되었다.

주제 39(1950)년 6월 26일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는 《모든 힘을 전쟁의 승리를 위하여》라는 역사적인 방공연설로 전세계 군대와 인민을 미제와의 만가리결전에, 조국해방전쟁의 승리로 힘있게 불러일으키시였다.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는 전쟁승리의 결정적요인을 병력의 수나 무장장비에서 찾지 않으시였다.

조국해방전쟁이 시작된지 얼마 되지 않은 주제 39(1950)년 7월 1일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는 외국인의 힘을 수호하기 위한 준비를 철저히 하였다고, 미제는 조선전쟁에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인적, 물적자원을 모조리 끌어모아 조선전에 투입하고 인류전

승리가 알지 못하는 가장 잔인한 방법을 다 적용하였다.

온 세계가 전쟁의 첫시작부터 불안과 우려를 가지고 조선을 지켜보았다. 과연 조선이 <강대성>을 자랑하는 미국의 무력침공에 어떻게 대응해나설것인가. 전쟁의 결과는 어떻게 될것인가. 이것은 결코 공연한 우려가 아니었다. 그것은 조선전쟁이 우리 인민의 운명뿐 아니라 반제자주위업의 전도와 관련되는 매우 심각한 문제였기 때문이었다. 바로 이러한 때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는 주제 39(1950)년 6월 25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비상회의에서 적들의 야만적인 침략전쟁에 우리는 해방전쟁으로 대답하여야 한다고,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것이라고 엄숙히 선언하시였다.

세계는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연설에서 그 어떤 퇴색력에도 드는것 없애고, 그의 신념과 의지, 무비의 담력과 배짱을 보았다.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 인민의 승리의 필연성을 확신하였다. 그것은 곧 현실로 되었다.

주제 39(1950)년 6월 26일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는 《모든 힘을 전쟁의 승리를 위하여》라는 역사적인 방공연설로 전세계 군대와 인민을 미제와의 만가리결전에, 조국해방전쟁의 승리로 힘있게 불러일으키시였다.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는 전쟁승리의 결정적요인을 병력의 수나 무장장비에서 찾지 않으시였다.

조국해방전쟁이 시작된지 얼마 되지 않은 주제 39(1950)년 7월 1일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는 외국인의 힘을 수호하기 위한 준비를 철저히 하였다고, 미제는 조선전쟁에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인적, 물적자원을 모조리 끌어모아 조선전에 투입하고 인류전

제2차 세계대전후 조선을 세계제패전쟁의 성공여부를 가늠하는 <시험장>으로, 사회주의와 자본주의간의 <결전장>으로 규정된 미제는 세계를 지배하기 위한 <십자군전쟁>을 조선에서부터 개시하였다. 미제는 자들의 수적, 군사기술적우세를 자랑하며 72시간에 <전쟁을 결속시켜>고 호언장담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오산하였다. 오히려 미제는 전쟁을 일으킨지 3일만에 서울을 내놓지 않았으며 인양되었다. 이것은 미제의 멸망을 예고하는 서막이었다. 3년이 아니라 3년동안이나 전쟁을 치르도록 미제는 역사상 처음으로 수치스러운 대참패를 당하였다. 그들에게 차 별제정은 승리가 아니라 죽음과 패배, 치욕뿐이었다.

1953년 7월 27일 저들의 패전과 항복을 공식인정하는 정전협정조인문에 서명한 미국군사령관 겸 <유연군> 사령관이었던 클라크의 <스피드>를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나는 정부의 지시를 수행함으로써 역사상 승리하지 못하고 정전협정이 조인한 최초의 미군사령관이라는 영예를 지니지 못한 이름을 가지게 되었다.》

클라크의 치욕은 곧 미국의 치욕이었다.

미제는 당시 동원할수 있는 인적, 물적자원을 퍼다 끌어

제2차 세계대전후 조선을 세계제패전쟁의 성공여부를 가늠하는 <시험장>으로, 사회주의와 자본주의간의 <결전장>으로 규정된 미제는 세계를 지배하기 위한 <십자군전쟁>을 조선에서부터 개시하였다. 미제는 자들의 수적, 군사기술적우세를 자랑하며 72시간에 <전쟁을 결속시켜>고 호언장담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오산하였다. 오히려 미제는 전쟁을 일으킨지 3일만에 서울을 내놓지 않았으며 인양되었다. 이것은 미제의 멸망을 예고하는 서막이었다. 3년이 아니라 3년동안이나 전쟁을 치르도록 미제는 역사상 처음으로 수치스러운 대참패를 당하였다. 그들에게 차 별제정은 승리가 아니라 죽음과 패배, 치욕뿐이었다.

1953년 7월 27일 저들의 패전과 항복을 공식인정하는 정전협정조인문에 서명한 미국군사령관 겸 <유연군> 사령관이었던 클라크의 <스피드>를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나는 정부의 지시를 수행함으로써 역사상 승리하지 못하고 정전협정이 조인한 최초의 미군사령관이라는 영예를 지니지 못한 이름을 가지게 되었다.》

클라크의 치욕은 곧 미국의 치욕이었다.

미제는 당시 동원할수 있는 인적, 물적자원을 퍼다 끌어

승리가 알지 못하는 가장 잔인한 방법을 다 적용하였다.

온 세계가 전쟁의 첫시작부터 불안과 우려를 가지고 조선을 지켜보았다. 과연 조선이 <강대성>을 자랑하는 미국의 무력침공에 어떻게 대응해나설것인가. 전쟁의 결과는 어떻게 될것인가. 이것은 결코 공연한 우려가 아니었다. 그것은 조선전쟁이 우리 인민의 운명뿐 아니라 반제자주위업의 전도와 관련되는 매우 심각한 문제였기 때문이었다. 바로 이러한 때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는 주제 39(1950)년 6월 25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비상회의에서 적들의 야만적인 침략전쟁에 우리는 해방전쟁으로 대답하여야 한다고,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것이라고 엄숙히 선언하시였다.

세계는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연설에서 그 어떤 퇴색력에도 드는것 없애고, 그의 신념과 의지, 무비의 담력과 배짱을 보았다.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 인민의 승리의 필연성을 확신하였다. 그것은 곧 현실로 되었다.

주제 39(1950)년 6월 26일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는 《모든 힘을 전쟁의 승리를 위하여》라는 역사적인 방공연설로 전세계 군대와 인민을 미제와의 만가리결전에, 조국해방전쟁의 승리로 힘있게 불러일으키시였다.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는 전쟁승리의 결정적요인을 병력의 수나 무장장비에서 찾지 않으시였다.

조국해방전쟁이 시작된지 얼마 되지 않은 주제 39(1950)년 7월 1일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는 외국인의 힘을 수호하기 위한 준비를 철저히 하였다고, 미제는 조선전쟁에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인적, 물적자원을 모조리 끌어모아 조선전에 투입하고 인류전

승리가 알지 못하는 가장 잔인한 방법을 다 적용하였다.

온 세계가 전쟁의 첫시작부터 불안과 우려를 가지고 조선을 지켜보았다. 과연 조선이 <강대성>을 자랑하는 미국의 무력침공에 어떻게 대응해나설것인가. 전쟁의 결과는 어떻게 될것인가. 이것은 결코 공연한 우려가 아니었다. 그것은 조선전쟁이 우리 인민의 운명뿐 아니라 반제자주위업의 전도와 관련되는 매우 심각한 문제였기 때문이었다. 바로 이러한 때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는 주제 39(1950)년 6월 25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비상회의에서 적들의 야만적인 침략전쟁에 우리는 해방전쟁으로 대답하여야 한다고,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것이라고 엄숙히 선언하시였다.

세계는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연설에서 그 어떤 퇴색력에도 드는것 없애고, 그의 신념과 의지, 무비의 담력과 배짱을 보았다.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 인민의 승리의 필연성을 확신하였다. 그것은 곧 현실로 되었다.

주제 39(1950)년 6월 26일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는 《모든 힘을 전쟁의 승리를 위하여》라는 역사적인 방공연설로 전세계 군대와 인민을 미제와의 만가리결전에, 조국해방전쟁의 승리로 힘있게 불러일으키시였다.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는 전쟁승리의 결정적요인을 병력의 수나 무장장비에서 찾지 않으시였다.

조국해방전쟁이 시작된지 얼마 되지 않은 주제 39(1950)년 7월 1일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는 외국인의 힘을 수호하기 위한 준비를 철저히 하였다고, 미제는 조선전쟁에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인적, 물적자원을 모조리 끌어모아 조선전에 투입하고 인류전

승리가 알지 못하는 가장 잔인한 방법을 다 적용하였다.

온 세계가 전쟁의 첫시작부터 불안과 우려를 가지고 조선을 지켜보았다. 과연 조선이 <강대성>을 자랑하는 미국의 무력침공에 어떻게 대응해나설것인가. 전쟁의 결과는 어떻게 될것인가. 이것은 결코 공연한 우려가 아니었다. 그것은 조선전쟁이 우리 인민의 운명뿐 아니라 반제자주위업의 전도와 관련되는 매우 심각한 문제였기 때문이었다. 바로 이러한 때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는 주제 39(1950)년 6월 25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비상회의에서 적들의 야만적인 침략전쟁에 우리는 해방전쟁으로 대답하여야 한다고,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것이라고 엄숙히 선언하시였다.

세계는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연설에서 그 어떤 퇴색력에도 드는것 없애고, 그의 신념과 의지, 무비의 담력과 배짱을 보았다.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 인민의 승리의 필연성을 확신하였다. 그것은 곧 현실로 되었다.

주제 39(1950)년 6월 26일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는 《모든 힘을 전쟁의 승리를 위하여》라는 역사적인 방공연설로 전세계 군대와 인민을 미제와의 만가리결전에, 조국해방전쟁의 승리로 힘있게 불러일으키시였다.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는 전쟁승리의 결정적요인을 병력의 수나 무장장비에서 찾지 않으시였다.

조국해방전쟁이 시작된지 얼마 되지 않은 주제 39(1950)년 7월 1일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는 외국인의 힘을 수호하기 위한 준비를 철저히 하였다고, 미제는 조선전쟁에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인적, 물적자원을 모조리 끌어모아 조선전에 투입하고 인류전

승리가 알지 못하는 가장 잔인한 방법을 다 적용하였다.

온 세계가 전쟁의 첫시작부터 불안과 우려를 가지고 조선을 지켜보았다. 과연 조선이 <강대성>을 자랑하는 미국의 무력침공에 어떻게 대응해나설것인가. 전쟁의 결과는 어떻게 될것인가. 이것은 결코 공연한 우려가 아니었다. 그것은 조선전쟁이 우리 인민의 운명뿐 아니라 반제자주위업의 전도와 관련되는 매우 심각한 문제였기 때문이었다. 바로 이러한 때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는 주제 39(1950)년 6월 25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비상회의에서 적들의 야만적인 침략전쟁에 우리는 해방전쟁으로 대답하여야 한다고,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것이라고 엄숙히 선언하시였다.

세계는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연설에서 그 어떤 퇴색력에도 드는것 없애고, 그의 신념과 의지, 무비의 담력과 배짱을 보았다.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 인민의 승리의 필연성을 확신하였다. 그것은 곧 현실로 되었다.

주제 39(1950)년 6월 26일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는 《모든 힘을 전쟁의 승리를 위하여》라는 역사적인 방공연설로 전세계 군대와 인민을 미제와의 만가리결전에, 조국해방전쟁의 승리로 힘있게 불러일으키시였다.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는 전쟁승리의 결정적요인을 병력의 수나 무장장비에서 찾지 않으시였다.

조국해방전쟁이 시작된지 얼마 되지 않은 주제 39(1950)년 7월 1일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는 외국인의 힘을 수호하기 위한 준비를 철저히 하였다고, 미제는 조선전쟁에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인적, 물적자원을 모조리 끌어모아 조선전에 투입하고 인류전

승리가 알지 못하는 가장 잔인한 방법을 다 적용하였다.

온 세계가 전쟁의 첫시작부터 불안과 우려를 가지고 조선을 지켜보았다. 과연 조선이 <강대성>을 자랑하는 미국의 무력침공에 어떻게 대응해나설것인가. 전쟁의 결과는 어떻게 될것인가. 이것은 결코 공연한 우려가 아니었다. 그것은 조선전쟁이 우리 인민의 운명뿐 아니라 반제자주위업의 전도와 관련되는 매우 심각한 문제였기 때문이었다. 바로 이러한 때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는 주제 39(1950)년 6월 25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비상회의에서 적들의 야만적인 침략전쟁에 우리는 해방전쟁으로 대답하여야 한다고,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것이라고 엄숙히 선언하시였다.

세계는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연설에서 그 어떤 퇴색력에도 드는것 없애고, 그의 신념과 의지, 무비의 담력과 배짱을 보았다.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 인민의 승리의 필연성을 확신하였다. 그것은 곧 현실로 되었다.

주제 39(1950)년 6월 26일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는 《모든 힘을 전쟁의 승리를 위하여》라는 역사적인 방공연설로 전세계 군대와 인민을 미제와의 만가리결전에, 조국해방전쟁의 승리로 힘있게 불러일으키시였다.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는 전쟁승리의 결정적요인을 병력의 수나 무장장비에서 찾지 않으시였다.

조국해방전쟁이 시작된지 얼마 되지 않은 주제 39(1950)년 7월 1일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는 외국인의 힘을 수호하기 위한 준비를 철저히 하였다고, 미제는 조선전쟁에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인적, 물적자원을 모조리 끌어모아 조선전에 투입하고 인류전

수리아아랍공화국은 아시아의 서부, 중동지구에 자리잡고있다. 역사적으로 끊임없는 침략을 받아온 수리아인민은 외세를 몰아내고 자주적이며 변혁하는 새 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왔다.

1963년 아랍사회부흥당에 의하여 일어난 3월 8일혁명은 나라의 정치경제적발전을 위한 수리아인민의 투쟁에서 역사적인 전환의 계기로 되었다.

혁명승리의 결과 수리아인민에게는 새 사회건설의 넓은 길이 열리게 되었다.

수리아는 반제자주적인 입장을 견지하여서 중동지역에 대한 제국주의자들의 침략과 지배권 확립을, 이스라엘의 영토확장 정책을 전적으로 반대하고 아랍나라들과의 단결과 협조를 강화하기 위하여 노력하고있다.

이를 못마땅해하는 미국은 이 나라를 경제적으로 질식시키고 군사적으로 압살하기 위해 수리

제2차 세계대전후 조선을 세계제패전쟁의 성공여부를 가늠하는 <시험장>으로, 사회주의와 자본주의간의 <결전장>으로 규정된 미제는 세계를 지배하기 위한 <십자군전쟁>을 조선에서부터 개시하였다. 미제는 자들의 수적, 군사기술적우세를 자랑하며 72시간에 <전쟁을 결속시켜>고 호언장담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오산하였다. 오히려 미제는 전쟁을 일으킨지 3일만에 서울을 내놓지 않았으며 인양되었다. 이것은 미제의 멸망을 예고하는 서막이었다. 3년이 아니라 3년동안이나 전쟁을 치르도록 미제는 역사상 처음으로 수치스러운 대참패를 당하였다. 그들에게 차 별제정은 승리가 아니라 죽음과 패배, 치욕뿐이었다.

1953년 7월 27일 저들의 패전과 항복을 공식인정하는 정전협정조인문에 서명한 미국군사령관 겸 <유연군> 사령관이었던 클라크의 <스피드>를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나는 정부의 지시를 수행함으로써 역사상 승리하지 못하고 정전협정이 조인한 최초의 미군사령관이라는 영예를 지니지 못한 이름을 가지게 되었다.》

클라크의 치욕은 곧 미국의 치욕이었다.

미제는 당시 동원할수 있는 인적, 물적자원을 퍼다 끌어

승리가 알지 못하는 가장 잔인한 방법을 다 적용하였다.

온 세계가 전쟁의 첫시작부터 불안과 우려를 가지고 조선을 지켜보았다. 과연 조선이 <강대성>을 자랑하는 미국의 무력침공에 어떻게 대응해나설것인가. 전쟁의 결과는 어떻게 될것인가. 이것은 결코 공연한 우려가 아니었다. 그것은 조선전쟁이 우리 인민의 운명뿐 아니라 반제자주위업의 전도와 관련되는 매우 심각한 문제였기 때문이었다. 바로 이러한 때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는 주제 39(1950)년 6월 25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비상회의에서 적들의 야만적인 침략전쟁에 우리는 해방전쟁으로 대답하여야 한다고,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것이라고 엄숙히 선언하시였다.

세계는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연설에서 그 어떤 퇴색력에도 드는것 없애고, 그의 신념과 의지, 무비의 담력과 배짱을 보았다.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 인민의 승리의 필연성을 확신하였다. 그것은 곧 현실로 되었다.

주제 39(1950)년 6월 26일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는 《모든 힘을 전쟁의 승리를 위하여》라는 역사적인 방공연설로 전세계 군대와 인민을 미제와의 만가리결전에, 조국해방전쟁의 승리로 힘있게 불러일으키시였다.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는 전쟁승리의 결정적요인을 병력의 수나 무장장비에서 찾지 않으시였다.

조국해방전쟁이 시작된지 얼마 되지 않은 주제 39(1950)년 7월 1일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는 외국인의 힘을 수호하기 위한 준비를 철저히 하였다고, 미제는 조선전쟁에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인적, 물적자원을 모조리 끌어모아 조선전에 투입하고 인류전

승리가 알지 못하는 가장 잔인한 방법을 다 적용하였다.

온 세계가 전쟁의 첫시작부터 불안과 우려를 가지고 조선을 지켜보았다. 과연 조선이 <강대성>을 자랑하는 미국의 무력침공에 어떻게